



2013년 하림농가 어울림 대축제 개최 ... 농가와 계열사 상생의 장 마련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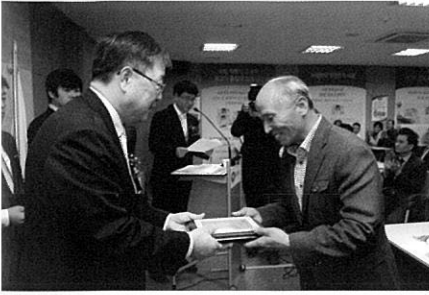
농가와 계열사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지난 3월 28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 소재한 정읍공장에서 '2013년 하림 농가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하고 생산성 우수 농가 등 시상과 함께 지난해 12월 건립된 정읍 공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하림의 이문용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하림 사육농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오늘 2013 하림농가 어울림 대축제를 마련했다”며 “먼저 우수 인증농가로 선정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하림 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3일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가와 계열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자세히 규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계열사와 사육농가간에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불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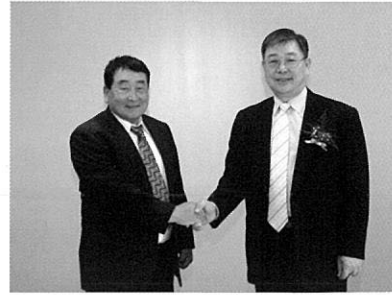
이에 하림농가협의회장인 이광택 회장은 “2005년 4월 하림 사육농가협의회 출범 이후 8년 여간 회사와 많은 대화의 과정 중에 상호 상생이라는 큰 목표아래 성숙된 대화의 장을 만들었고 많은 개선도 있었지만 농가가 느끼는 체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계



▲ 생산지수 400 이상을 기록한 농가에게 Harim 400 Award 상패가 전달되고 있다.



▲ 정읍공장 견학 모습



▲ 이문용 사장과 이광택 회장이 농가와 계열사간 상생을 다짐했다.

다가 지난해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상호간에 상처를 주었던 큰 아픔을 거울삼아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농가협의회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회사에 농가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양기술 보급, 농가의 사육시설개선 및 계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하여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농가 소득증대 및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농가협의회 임원 소개가 있었으며 민경만 상무의 정읍공장 소개와 함께 장기우수농가 등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생산지수 400 이상을 기록한 농가에게 수여되는 ‘2012년 Harim 400 Award’ 상패를 신설해 김정기, 조공 대표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후 농가들은 정읍공장을 견학했으며, 점심식사 후 추첨을 통해 TV,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문용 대표 · 이광택 농가협의회장 상생 다짐

공식 행사 일정이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림 이문용 대표와 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금의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농가가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용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계육산업은 자급률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입육과의 싸움에서 동물복지형 · 브랜드육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 부진에 대해서도 “산지가격이 폭락해도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수입육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설명했다.

이광택 회장은 “회사에서도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대화와 협조를 통해 계육산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